

제2회 재외동포NGO활동가 대회 (2005년 11월 1일 화 ~ 4일 금)

- 주최 : KIN(Korea International Network)
 - 주관 : 제2회재외동포NGO활동가대회추진위원회(10개 단체)
동북아두레공동체운동, 동북아평화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남대학교세계한상문화연구원,
중국동포의집·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타운신문,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청년연합회(KYC),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 후원 :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리아포커스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역사나눔1-3

<에다가와 재판사건>의 의의와 가능성

황의중 | 에다가와조선학교문제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일본 도쿄 에다가와라는 곳에서 지금 조선학교 토지문제를 둘러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고는 도쿄도(이시하라 지사)이고 피고는 학교법인체인 조선학원(총련)입니다. 도쿄도 소유의 땅을 조선학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내던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면 도쿄도의 주장에 무리가 없는 단순한 민사소송사건일 듯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쿄도의 제소)은 표면적인 내용의 단순성과는 달리, 실로 많은 의미와 변화 가능성을 담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소송은 현재의 토지의 무상사용에 관한 법적 권리문제를 다루지만, 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가의 역사적 경위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학교(도쿄조선초급학교)의 역사와, 일본정부(도쿄도)의 조선학교에 대한 그동안의 태도와 시책, 그리고 일본사회의 민족교육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양상, 그리고 현시점(국제적 흐름)에서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사회의 판단을 묻게 됩니다. 식민지시대와 그 이후 지금까지의 현대사가, 그 역사인식과 청산의 문제가 재판의 주요 논쟁점의 하나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재판에 한국사회가 관심을 지니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제일조선인사회가 존재하고 관계해 왔던 기존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주요 변수로 기능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체관계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가능성을 인식하고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주로 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에다가와 조선학교 재판의 경과

향후 변화의 가능성에 비하면 재판의 출발은 단순하게 느껴집니다.

1) 도쿄도 주민의 도쿄도에 대한 감사청구(2003년8월)

4명의 지역 주민이 도쿄도에 정식으로 항의했습니다. 도쿄도가 돈도 안(못)받고 조선학교에 토지를 임대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도쿄도내의 자체 감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2) 감사위원회가 도쿄도에 시정 권고(10월)

감사위원회는 주민 주장의 일부는 타당하다고 결론짓고 도쿄도에 시정 권고를 내립니다.

3) 도쿄도 법원에 소송(12월)

시정 권고를 받은 도쿄도(이시하라 지사)는 이례적으로 강수를 써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토지반환 및 그 동안 사용료로 4억엔을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교를 없어지면 그 자리가 개발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 부동산 관련 주민4명, 그리고 일본 극우세력의 대표적 인사인 이시하라 도쿄도 지사와 도쿄도의 관련 간부들은 일본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흐름과 특히 납치문제 이후 터진 광적이며 비이성적인 <북조선 죽이기>란 일본사회의 분위기를 의식했을 것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위축되어 당사자인 조선학교 및 재일조선인의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며, 일본사회 여론 역시 조선학교를 옹호하기는 힘들 것이고 그 밖의 지원세력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기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 재판이 지닌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지 못한 판단인 듯합니다.

이 재판은 이미 국제화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더 국제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4) 일본내 시민들의 지원 단체 결성됩니다.(2005년3월)

<에다가와 조선학교 지원 도민기금>(이하 지원연락회)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지원연락회는 단순히 소송이 생기자 모인 단체라기보다 장기간 관련 활동과 연구를 해온 사람들이 결합된 단단한 조직입니다. 구성원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책 간행 그룹

재일조선인 문제에 관심을 지니던 지역내 인사들이 <화수회>라는 모임을 조직하여 8년 동안 에다가와 조선인의 삶과 역사를 조사 기록한 <동경의 코리안타운 -에다가와 이야기>란 책을 94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금 재판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2004년 증보신판)

(2) 민족교육 연구회의 학자 그룹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연구하고 지원활동을 벌여온 일본의 학자들이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지역내의 인권 문제 등에 관심을 지닌 운동가들이 결합하였습니다.

시와 구의원 및 지역내 시민운동가 들이 에다가와 재판 문제가 발생한 이후 결합하였습니다.

(4) 일본변호사연합회(일변련)의 변호사가 가담합니다.

2년전 국립대학 입학자격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 때, 사무국장으로 이 문제를 승리로 이끈 일변련의 모로오카 변호사가 재일동포 김순식 변호사와 함께 조직적으로 참가합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60년대부터 조선학교(민족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만큼 역량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와 유기적으로 연대하며, 행사를 개최하고 세미나 활동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지역사회와 전체 일본사회에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비교적 널리 알려졌습니다. 전국 단위의 교육 및 인권관련 단체에서 에다가와 문제를 관심 있게 다루고 있으며, 또한 지역 및 전국 단위의 방송에서도 이 문제가 취급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지원기금을 마련하여, 일본사회에서는 최초로 에다가와 학교에 물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기해야 될 사항은 지원연락회 및 변호인단의 의지와 향후 계획입니다. 이들은 일본내에서 진행된 유사한 재판 중 최초로 승리하리라는 자신감은 물론, 내년 전반기쯤으로 예상되는 1차 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을 계기로, 일본사회 내의 민족교육권의 확보를 위한 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킨다는 강한 의지와 전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운동의 주체인 총련의 희망이나 계획과도 일치되는 것으로, 내년 이후 조선학교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민족교육권 문제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민단 및 한국정부가 더 이상 조선학교문제에 무관심과 방관자적 입장에만 머물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시민사회가 가세하면 교육문제를 고리로 민단과 총련이 공동 대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5) 한국사회가 문제에 관심을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 14일, 국회의원 및 교육계, 언론계, 시민활동가를 중심으로 10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가한 <에다가와 조선학교 문제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결성되었고, 며칠 뒤 바로 국회의원 및 민변과 종교계 인사가 포함된 대표단을 구성, 현지 조선학교를 방문하고, 또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일본 지원연락회와 연대 모임을 갖고, 한국의 성금도 전달하였습니다. 이때 KBS와 MBC가 동행 취재하여 각각 시사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영하였습니다. 에다가와 재판 사건의 범위가 일본에서 한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일본 방문 후, 대책회의는 한국 내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진전시회를 진행중이고, 조선학교 문제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SBS가 3개월에 걸친 장기 밀착취재와 준비 작업을 거쳐 9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방영하였고, 이것이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아 재방영까지 하여 한국사회에 에다가와 조선학교 문제가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SBS스페셜>의 시청자의견란에는 다른 방송에서는 보기 드물게 1000건 이상의 뜨거운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심코 본 프로그램이 저에게 많은 걸 일깨워 준 듯합니다.
방송 보는 내내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우리 3세대 4세대..학생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것,,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제 2학교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회가 된다면 꼭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참여마당 신문고에 에다가와 조선인 학교를 도와 달라고
제안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도 보냈다.....
이제 우리는 남북을 떠나서 한국의 글과 말을 가르치고 얼을 지키는 에다가와 조선인 학
교 등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들은 다들 단군이래 같이 살아온 우린 한민족 아닌가????

20대인 저는 이번에 이 방송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껏 그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안좋게 바라보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요, 도쿄 제2학교의 여름' 이 프로그램을 팔지는 않나요? 학교 수업시간에 보여 줄려고 하는데....

'나는 가요'를 보고 난후, SBS스페셜의 왕팬이 되어버렸습니다. 솔직히 통일에 대해, 재외 동포에 대해 그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깊이 생각해 본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들이 타국에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국의 활동과 그 영향

에다가와 대책회의 활동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다가와 재판을 측면 지원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사회에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한 이해를 확대 심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조선학교를 살리는 일이고, 이를 위해 한국사회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일조선인의 생명과도 같은 조선학교는 재일조선인과 총련의 헌신적 노력 그리고 북조선정부의 지원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발전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부와 사회는 철저하게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해왔을 뿐 아니라, 적대시하고 일본 정부에 탄압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분단구조가 작동하였습니다. 이 조선학교가 재일조선인과 총련, 그리고 북조선정부의 자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위기의 국면에 들어서 있으며, 또한 이를 타개할 뚜렷한 방안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단을 극복하여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국가를 지양하는 민족사의 긴 흐름의 시점에서 한국사회와 정부가 조선학교 문제 해결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위성보다는 한국사회에 내재된 자연스런 흐름과 그 힘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져 올 변화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동안 긴 시간동안 한국사회가 재일조선인에 대해 무관심했었기에 그 공백만큼 자연스럽게 관심이 형성될 것이며, 이는 기존 관계들에 새롭고 중요하며 또 힘있는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에다가와 조선학교 문제는 그 출입구에 위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가능한 변화의 방향(활동의 방향)을 거칠게 예상해 봅니다.

1) 조선학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다.(조선학교는 한국사회의 관심을 끌 충분한 매력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조선학교를 만들고 유지해온 재일조선인들의 삶과 역사를 이해하게 된다.

-총련과 북조선정부의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왜 조선학교 학생에게 조국이 북조선인지 이해하게 된다)

-민족교육에 대한 한국정부와 민단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기민정책과 한일협정 등 재일조선인에 대한 한국사회와 정부의 반성과 사죄가 선행된다)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정책을 알게 되고,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민족교육권 보장 요구와 함께 한국사회내의 외국인교육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2) 민간차원에서 조선학교살리기 운동이 자연스럽게 전개된다.

이는 무엇보다 총련의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단 역시 변화하여 민족교육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될 것이다. 화해와 통합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민간차원의 운동이 지닌 한계를 인식하게 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운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일조할 것이다.

3) 남북정부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

남북 장관급 회담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 남북통일준비위원회(가칭)의 구성 방안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 가는 출발점의 하나로 에다가와 조선학교가 놓여 있다는 생각과 이같은 변화는 우리 역사와 사회에 내재된 흐름일 것이란 생각, 그리고 조선학교 문제에 있어서, 총련의 주도적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총련의 헌신적 열정과 노력을 대체할 세력이나 조직을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총련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능동적 변화 역시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사회보다 오히려 일본외의 재외동포의 역할이 효율적이란 점도 첨가합니다.

* 이 글은 에다가와 대책회의의 견해가 아니라 개인의 의견임